

# 10문 10답으로 풀어본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개발

---

1 국가상징이란 무엇인가요?

– 여기서 잠깐! 태극기와 무궁화의 의미

2 정부상징이란 무엇인가요?

3 정부상징체계 개발 사업은 무엇이고, 왜 추진하나요?

4 외국 정부의 상징체계는 어떤가요?

5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요?

6 기존 정부기 문양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?

7 정부상징은 어떻게 개발되며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

8 모든 부처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하나요?

9 이전에도 정부상징체계 개발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나요?

10 정부가 바뀌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?

# 1문

## 국가상징이란 무엇인가요?

● "국가상징이란 국제사회에 한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자기 나라를 잘 알릴 수 있는 내용을 그림·문자도형 등으로 나타낸 공식적인 징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."

—국가기록원

● 국가의 존립을 표상하는 기호인 국가상징에는 오랜 세월 이어 온 가치관과 신념 등 국가 정체성의 본질적인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.

● 우리나라에는 대한민국(국호), 태극기(국기), 애국가(국가), 무궁화(국화), 나라문장(국장), 나라인장(국새) 등이 있습니다.

### 우리나라 국가상징 현황



국기



국가



국화



국장



국새

| 종류        | 법적 근거  |
|-----------|--|
| 태극기 (國旗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대한민국국기법」 (2007. 1. 26. 제정)</li> <li>○ 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」</li> <li>○ 「국기의 게양·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」 (국무총리훈령)</li> </ul> |
| 애국가 (國歌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습 (1936년 안익태 작곡, 작사자 미상)</li> <li>* 「대한민국국기법시행령」 제4조 및 제19조, 「국민 의례규정」 (대통령훈령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|
| 무궁화 (國花)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관습</li> <li>* 구한말 이후 애국가 가사의 후렴구 등에 반영, 정부수립 이후 자연스럽게 국화로 정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국새 (國印)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국새규정」 (대통령령, 1949. 5. 5. 제정)</li> <li>* 헌법개정공포문의 전문, 대통령 임명장, 외교 문서 등에 활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|
| 나라문장 (國紋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나라문장규정」 (대통령령, 1963. 12. 10. 제정)</li> <li>* 국가시설, 재외공관 건물, 외국에 발신하는 공문서 등에 활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|

여기서 잠깐!

## 태극기와 무궁화의 의미

### 태극기 太極旗

태극 문양은 백제 사비 시기(A.D. 538~660년)의 목제장식유물에서 최초로 등장한다. 이는 중국의 『태극도설(太極圖說)』보다 460년 앞선 7세기 초에 등장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최고(最古)의 태극문을 보유하고 있다. 태극문은 삼국 및 조선시대 생활문화에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개화 및 일제강점기 시기 국가적 조약체결 시 조선이 독립국가임을 나타내는 과정에서 사괘(건, 곤, 감, 리)와 함께 최초로 국기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. 독립운동에서는 국가의 자주성과 전통성을 표방하는 상징적 외침을 전달하였다. 그 후 1942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공화국임을 나타내기 위해 국기를 태극기로 공식화 하였으며 현재 나라 상징물 중에 유일하게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.

### 무궁화 無窮花

기원전 8~3세기 춘추전국시대 최고(最古)인 『산해경』에 따르면 무궁화(훈화초:薰華草)는 2천여 년 전부터 한반도에서 피어있던 꽃이다. 특히 신라시대에는 최치원이 당나라로 보내는 국서에 자국을 '근화향'(무궁화의 나라)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나라를 상징하는 꽃으로 널리 활용되었다. 일제강점기에 시기 국권이 상실되었을 때 황실의 오얏꽃 대신 일제 탄압에 맞선 민중의 꽃으로 나라와 민족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. 꽃피는 기간이 7~10월로 길어서, '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 지지 않는 꽃'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무궁화는 역사 속에서 민중이 선택한 꽃으로 태극기의 깃봉과 애국가의 가사, 나라문장, 국회를 비롯한 각 정부 부처의 상징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## 2문

# 정부상징이란 무엇인가요?

-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'나라문장' 아래 3부(입법·사법·행정)를 표상하는 상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.
- 3부의 상징 중에서 행정부를 표상하는 상징을 '정부 상징'이라고 합니다.
- 다만 현재 정부를 이루고 있는 각 부처와 소속기관들은 '정부 상징'과 연계성이 없는 상징을 별도 제작하여 기관을 표상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.

### 우리나라 3부 상징 현황



행정부(정부기)

「정부기에 관한 공고」  
(대통령 공고 / 1988.11.24.)



입법부

「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」  
(국회규칙 / 1973.6.1.)



사법부

「법원기에 관한 내규」  
(대법원 내규 / 1969.11.13.)

###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상징 운용 현황



# 3분

## 정부상징체계 개발 사업은 무엇이고, 왜 추진하나요?

- 현재까지 정부 각 부처는 별도의 상징체계를 운용해 오고 있는 바, 이로 인해 정부 조직은 개편 때마다 기관별로 MI를 신설·변경해야 했고, 국민들은 정부 기관의 이미지를 명확하게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. 또한 그간의 상징이 국제관계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.

\* '13년 이후에만 13개 중앙행정기관이 조직의 신설 및 변경으로 MI 변경

-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, 국민들은 현재 정부 부처 상징 22개 중에서 평균 0.52개만을 인지하고 있고, 각 기관에 적용될 일관된 정부상징체계가 필요하다(68.9%)고 답하였습니다.
-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계기로, 우리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새로운 정부 상징체계를 개발하여, 이를 각각의 정부기관을 표상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.

### 대한민국 정부상징체계 개선 예상 시뮬레이션



## 4문

# 외국정부의 상징체계는 어떤가요?

- 세계 각국은 국가 내의 정부상징체계 운영 전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.
- 각국의 정부상징체계를 크게 '통합형, 혼합형, 개별형'으로 유형 분류할 수 있습니다.

### 외국 정부의 상징체계

| 유형 | 통합형                | 혼합형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별형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국가 | 독일, 프랑스, 네덜란드, 캐나다 | 영국, 미국, 덴마크                 | 오스트리아, 폴란드 |
| 특징 | 일관된 디자인 형태         | 통일성은 있으나 부처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한 형태 | 개별적인 형태    |

### 통합형



<네덜란드 정부>



<캐나다>



<독일>



<프랑스>

혼합형



<영국>

<미국>



<덴마크>

개별형



<오스트리아 정부>

<폴란드 정부>



<일본 정부>

##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요?

- 현재 22개 국가행정기관 표본을 대상으로 한 '15년 2월 시뮬레이션 결과를 참고하여 중앙행정기관에 5천만 원, 특별지방행정기관에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

\*시범적용('16년 초): 문화체육관광부 (5천만 원)

\*1단계('16년): 중앙행정기관 (42곳, 21억) + 특별지방행정기관 (716곳, 214억 8천만 원)

\*2단계('17년): 부속기관+합의제 기관 (적용 여부에 따라 소요경비 별도 추계)

- 이는 '표지판·건물 현판·주차장 간판·깃발·안내도 등 외부 사인물과 출입구·안내 홍보 배너·단상·대변인실 백월 등 내부 사인물, 명함·차량·출입증·방문증 등' 상징 적용 범위를 일괄 변경하여 추출한 것입니다.
-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내·외부 사인물 등 당장 적용하여야 하는 기본 품목 외에는 물품의 소진 시 및 교체시기에 교체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소요 경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.
- 동 사업으로 정부 조직개편 때의 잦은 기관 상징의 변경으로 인한 소요 경비가 절감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 일관된 상징 적용에 따른 국민들의 정부 상징에 대한 식별의 용이, 정부 내 소통의 원활화 등으로 인한 간접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

\* 중앙행정기관 MI 변경 : 2008년 16곳, 2013년 이후 13곳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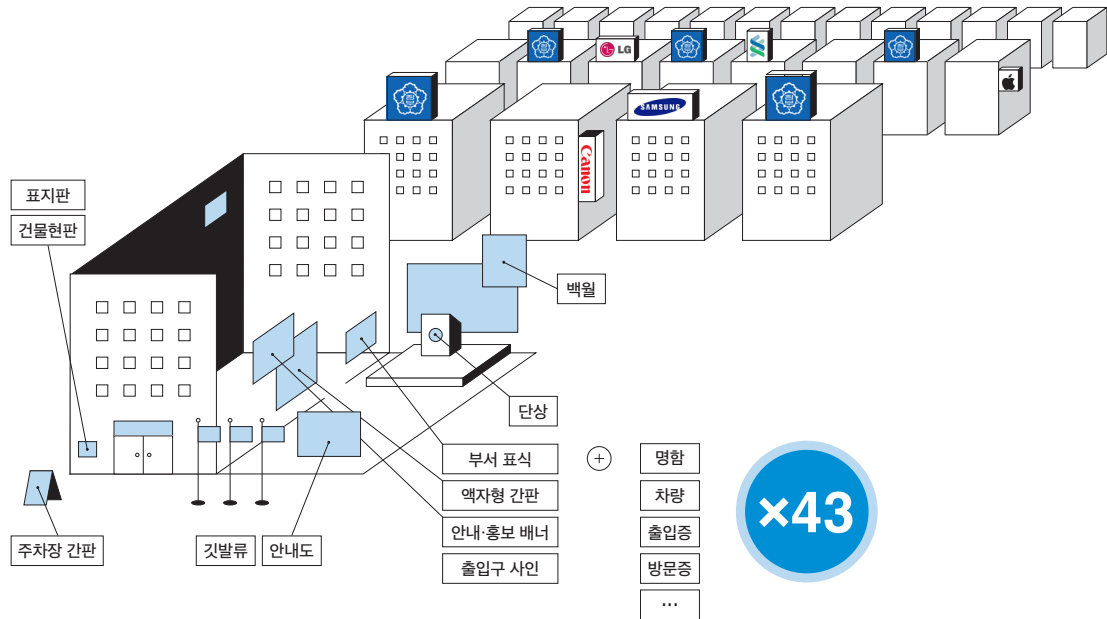
(조달청 계약의뢰 기준, MI개발에 부처별 과업에 따라 3천만 원 ~ 1억 2천만 원 가량 소요)

- 참고로 우리 계획과 유사하게 2007~2008년 175개 국가기관의 상징을 체계화한 네덜란드는 연 6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로 체계화에 소요된 비용(213억 원)을 3년 만에 거두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.



- (외부사인물) 표지판, 건물 현판, 주차장 간판, 깃발류, 비석, 안내도 등
- (시설물 내부) 출입구, 안내·홍보 배너, 부서 표식, 액자형 간판, 단상, 백월 등
- (기타) 명함, 차량, 출입증·방문증 등

\* 다만, 봉투·서식 등의 일상물품은 소진시기에 맞추어 교체 추진



## 6문

# 기존 정부기 문양을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?

- 동 사업은 단순히 정부기의 문양 변경이 아닌, 전 정부기관의 상징체계를 일관되게 체계화하는 사업으로 기본 심볼 뿐 아니라, 조직 명칭이 변하더라도 언제나 적용 가능한 전용서체, 국민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공문서 서식 등 응용체계까지 전반에 걸쳐 개발하는 작업입니다.
- 따라서 기존의 정부기 문양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안보다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상징체계 전반을 새롭게 개발하여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
- 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대한민국 정부 상징체계 개발 방법으로 현재 정부문양을 유지하기(26.3%)보다는 현재 정부 문양을 개선(39.6%)하거나 새로운 상징마크를 개발(34.1%)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.
- 정부상징체계 개발 과정에서 국민 아이디어 공모, 상징 콘테스트 등 적극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역량을 한 데 모으는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하는 상징체계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\*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발 시 무궁화, 태극기 문양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답한 응답자, 72.4%

## 7문

# 정부상징은 어떻게 개발되며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나요?

- 2015년 개발단계를 거쳐, 2016년 적용 및 2017년 확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한국학, 역사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대한민국 상징 소재 연구(1~3월)를 바탕으로, 국민들의 상징 아이디어 공모, 전문디자인업체의 디자인 공모(3~8월), 전시회와 공청회(8월) 등을 통해 최종 정부상징(안) 선정(10월)과 적용지침 마련이 12월 완료로 진행됩니다.
- 2016년 초에 문체부에 시범 적용되고, 이후 완성된 적용 지침을 근거로 전 정부에 적용됩니다. 2016년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방행정기관, 2017년 부속기관 및 합의제 행정기관에의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- 정부상징체계 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'정부협의체'(부위원장 : 행정자치부 의정관,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)가 구성되어 있으며, 상징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자문을 해 줄 민간 '자문 위원회'와 '국가상징체계 개발 추진단'이 함께 협의하며 추진합니다.

## 8문

### 모든 부처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하나요?

-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행정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검토합니다. 다만, 새로운 상징의 적용으로 오히려 국민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일부 기관(경찰청, 우정청 등)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를 검토할 예정입니다.
- 적용기관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올해 8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.

## 9문

### 이전에도 정부상징체계 개발을 추진한 사례가 있었나요?

- 새로운 정부상징체계의 구축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이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일관된 이미지를 통해 국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정부로 도약하기 위한 것으로, 우리 정부의 오랜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.
- 다만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의 정부상징체계 개발 검토 등 그간의 정부 노력은 국민적 관심 부족과 정부 내부의 협의체 기능 부족 등으로 인해 큰 성과 없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.
- 광복 70주년을 계기로, 기존의 시행착오를 교훈삼아 국민들과 각 부처가 공감할 수 있는 정부상징체계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

## 국가상징 및 정부상징 연혁

- 1949년 : 문교부, 3부의(입법·사법·행정) 표식을 무궁화로 지정
- 1963년 : '나라문장 규정' 제정
- 1988년 : 무궁화 문양을 활용한 '정부기' 제정
  - 「정부기에 대한 공고」 발표 ('88.11.28 대통령 공고 제99호)
- 1988년~1998년 : 각 부는 정부기에 기관 명칭을 넣어 사용
- 1995년 : 국무총리 지시 "정부기의 무궁화 로고를 21세기를 향한 미래지향적 문양으로 교체 검토"
- 1998년~현재 : 부처 개별 MI 사용 시작
- 2009년~2011년 : 정부부처 통합상징체계 개발 추진(국가브랜드위, 행안부)

## 10문

### 정부가 바뀌면 또 달라지지 않을까요?

- 새로 개발되는 정부상징체계가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물론 법령의 제·개정 등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.